

전북 경제민주화 지원 시행계획 심의·확정

도, 소상공·중기 성장단계별 지원 등 '동반성장'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활동·교육 확대 '공정거래' 노사협력 강화 '노동환경' 등 3대 정책과제 마련

전북도는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지난 8일 개최하고 전북도 경제민주화지원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보호 및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노사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여 2018년 '전북도 경제민주화 기본 계획(2018~2022)'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해마다 보완 수정하면서 경제민주화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는 전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그동안의 공정경제 정책 평가 및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등 논의가 이뤄졌다. 2018년에는 3개 분야 42개 사업을 추진하여, 동반성장인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사회적약자 지원, 공정거래인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소비자 권익보호, 노동환경인 노사 민청 협

력을 강화했다.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별(창업 성장 재기) 지원과 유통업 상생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전국 최초 추진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함께 크는 동반성장' 부문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중심의 상생정책과 사회적약자 계층(여성, 장애인, 청년)의 자립 성장지원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시행계획에는,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민생발착형 경제민주화'를 비전으로 45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동반성장으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비용부담 완화 및 창업 재기 지원과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중소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단계별을 지원한다. 또한 공정거래인 대형유통업체와 상생협력 추진 및 불공정 행위 감시 활동, 소비자 교육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노동환경인 노사 협력 문화 정착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제민주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착을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 중심으로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실태조사, 추진상황 점검 등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체감도와 상징성이 높은 신규사업 발굴 및 관련 법령(조례) 및 제도에 대한 개선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경제 활력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모든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공정거래,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효성 첨단소재 투자협약 체결식이 지난 8일 전주시 전북도청 접견실에서 실시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성환 전북도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박병술 전주시 의장 최승주 효성첨단소재 탄소소재사업단장 및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주에 탄소섬유소재 증설 투자 이뤄져

전북도-전주시-효성첨단소재, 친환경첨단복합산단 투자 협약 18만48.3㎡ 부지에 468억원 투자 40여명의 일자리 신규 창출 현재 연 2000톤에서 4000톤 규모 생산량 증대 내년 완공 목표

전북도에 탄소섬유소재산업 증설 투자가 이뤄져 첨단소재산업의 기틀이 확충되고 경쟁력이 강화된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지난 8일 전북도지사 접견실(4층)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최승주 효성첨단소재(주) 상무와 박전진 탄소소재사업단 전주공장장(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효성첨단소재(주)와 탄소섬유소재 증설 투자에 따른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 내용은 도 및 시, 기업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은 차질 없는 투자와 고용창출에 노력하고, 도와 시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협조를 다하기로 상호 협약했다. 효성첨단소재(주)는 지난 2007년 탄소섬유 개발에 뛰어들어 이후 2013년 5월 부터 현재까지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단지에 탄소섬유 사업장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 18만48.3㎡(54,465평) 부지에 468억원을 투자해 40여명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등 탄소섬유소재 사업장을 대폭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증설 투자는 기존 부지에 라인을 추가해 현재 연 2,000톤에서 4,000톤 규모로 생산량을 대폭 늘리는 것으로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효성측은 또 이번 투자에 이어 향후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전라북도 탄소융복합산업발전에 다시 한번 기틀을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효성첨단소재(주)는 현재 울산(타이어 코르디지, 산업용원사), 경주(철강선), 대전(카펫 및 원사), 전주(탄소섬유) 등 4개 사업장을 운영 중으로 효성첨단소재(주)가 생산하고 있는 고강도 산업용 원사 및 직물과 강선 소재는 자동차, 토목·건축, 농업, 군수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두루 적용되고 있다. 효성첨단소재(주)는 현재 첨단소재 기술분야에서 국내 최강자로 군림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소재의 자체 연구개발 및 상업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꾸준히 키워 나가고 있다. 효성첨단소재(주)의 탄소섬유는 '꿈의 신소재'로 불리며 철보다 4배 더 가볍고, 10배 더 강한 걸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미래 첨단 신소재로 알려지고 있다. 연료용 CNG 고압용기, 자동차용 구조재, 풍력, 우주항공용 소재와 스포츠레저용 제품 등 철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신소재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효성첨단소재(주)가 빠른 시일 내 공장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 전주시가 함께 모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소재기술산업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성장·발전을 이루고 국내를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첨단 소재기술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100년 전 독립정신, 평화와 통일로 전주시·전주313위원회,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